

Dubai유 60달러 되면 경제타격 막대

현대경제연구원, 2005년 성장률 2.8%로 떨어져 ... 50달러선은 3.6%

2005년 하반기 중동산 두바이(Dubai)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60달러까지 오르면 200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월20일 <국제유가 평균 50달러선 넘어서면 3% 성장도 어렵다>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제유가 흐름은 명목가격으로 사상 최고치이고 실질가격으로도 1991년 걸프전 때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는 기업의 제조원가를 높여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민간소비 부진과 기업투자 침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동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산유국들의 추가 증산이 없는 가운데 미국·중국 등의 석유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60달러에 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중국 등의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면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50달러 선에 머물러 한국의 성장률도 3.6%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가의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는 해운·항공을 제외한 운수업과 보관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철강·건설·조선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자제,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심리 위축을 막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사용효율성을 높이고 해외유전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화학저널 2005/07/25>